



(주)컨벡스코리아대표 김 지 명

화장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것 같다. 여성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면 우리도 가장 자랑스런 시설로 화장실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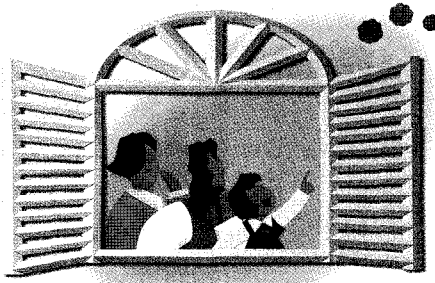
가장 자랑스러운 시설은 화장실

얼마 전 일본 후쿠오카시가 자랑하는 새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안내자가 가장 자랑스러운 시설이라며 제일 먼저 안내한 곳은 뜻밖에도 여자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의 출입통로는 줄을 선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고, 아기를 돌보는 작은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오페라 관객은 여성이 많다는 점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기와 세면대의숫자를 남자화장실의 두 배로

늘렸다. 화장실의 거울은 보통 세면대 앞쪽 벽면에 설치돼 있어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미적거리다 보면 손을 씻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지 않은 벽면에 거울만 따로 10여 개를 붙여 놓았다.

나는 어느새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의 화장실과 비교를 하고 있었다. 예술의 전당 화장실은 남녀가 입구를 같이 쓰도록 설계돼 있고 여자화장실의 세면대와 변기수도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





공공건물의 화장실 설계가 많이 뒤졌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었다.

반가운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화장실 문화개선을 큰 과제로 인식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들어 그 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포공항의 화장실만 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하 화장실을 개조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시설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다.

그러나 건물의 화장실을 설계·건축하고, 화장실 캠페인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는 들어가 볼 일이 없고, 따라서 고쳐지지 않고 산적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여자화장실의 문제점

그것은 많은 공공 건물에서 여성화장실은 그 건물 청소원 아줌마들의 휴식공간과 청소도구 보관 공간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쓰레기 보관 공간을 겸하는 기막힌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은 건물 설계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지은 첨단건물 이외에 대부분 건물은 청소요원들의 휴식공간과 청소도구 보관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건물 설계만 탓할 일은 아니다.

청소원들의 훈련과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청소원들은 여자화장실에서 이용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큰소리로 잡담을 하고, 아무데나 빨래를

널어놓는가 하면 심지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기도 한다. 이런 일이 허름한 건물에서만 벌어 지는 것이 아니다. 외국계 은행이 입주해있는 테헤란로의 첨단 건물 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관리자 교육이 필요한 시대

빌딩 관리자나 청소용역 업체들은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여자화장실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며 사적 공간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 용구의 수납공간도 따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무척 괴롭고 불쾌한 일들이지만 남성은 전혀 모르는 이런 일을 여성들은 늘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